

목조주택에서 살자

— 목조주택의 이점 —

-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 590명을 대상으로 목조주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목조주택 소유를 원하는 사람이 32%에 달하는 등 목조주택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고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또한 나이가 많을 수록 목조주택을 선호한 경향이 있었으며, 목조주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름답기 때문에 (50%), 고급주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(30%)로 나타나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목재는 천연의 아름다운 무늬결 및 촉감을 지니고 있고 어떠한 인공향료로도 흉내낼 수 없는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고 목조주택은 인간을 위한 주거용 주택 재료로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, 또한 목재의 향은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산림욕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.
- 목재는 열전도율이 콘크리트의 1/7에 불과하여 단열성능이 뛰어나며, 한번 열을 받으면 자체보존하는 보온성능이 우수하여 한낮의 태양열을 차단하고 이를 목재내에 저장하였다가 밤에 실내로 방출함으로써 실내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한다.
- 또한 목재는 콘크리트나 돌등에 비하여 보행시에 인체에 관절부위에 전달되는 피로감이 현저히 적어 신체건강 유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일례로 일정 높이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오르는 반발높이가 목재는 15% ~ 20%인에 비하여 콘크리트는 40% ~ 50%, 70% ~ 75%에 달하는 목재가 관절충격을 줄이는 것을 알 수 있다.
- 이외에도 목재로 주택을 지을 경우 습도조절 기능이 우수하여 여름의 장마철에는 습기를 흡수하고 겨울의 건조기에는 습기를 방출함으로써 쾌적한 느낌을 주고 호흡기 질환예방에 도움을 주며, 목재로 내장을 할 경우 통풍이 잘 되고 눈의 안정과 미동조절 기능에 도움을 주는 등 생체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